

# 육용종계사육 중 마이코톡신 중독

- 폐사와 산란율 저하로 큰 피해 -

**육** 용종계를 평사사육하는 경남 양산의 정 풍농장(대표 도종호) 종계 9,800(29주령 58,000수, 57주령 40,000수)가 5월8일 갑자기 산란율과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고 폐사율이 높아져 가검물 검사 결과 마이코톡신 중독증이라고 밝혀져 부산 고려산업(주)와 농장측이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정풍농장은 지난 5월 8일 29주령 5,800수(3계동) 중 3,800수가 산란율이 전날 65%에서 57%로 떨어지고 사료섭취량이 3배 이상 감소하였다. 57주령 계군은 폐사율이 증가되어 즉각 도태시키고 원인 규명을 위하여 종계 축탁수의사에게 진단 의뢰 결과 환풍기 공사로 인



△ 사고현장에서 폐사된 닭들

한 스트레스로 판명되어 우로마이신, 중조, 전해질, 이노실을 투약했다.

또한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료에

이상이 있으나 5월9일 1호계사(1900수)에 P사 사료를 공급하고, 3호계사(1900수)에는 새로 구입한 고려사업의 해표사료를 급이하였다. 2호계사(2,000수)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기존에 급여하던 해표사료를 계속 급여하였다. 5월 10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담당수의사가 농장을 방문, 폐계를 해부한 결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므로 우로마이신과 중조 투약을 중지하고 전해질과 이노실만 계속 투약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가검물 병성감정을 수의과학연구소에 의뢰하였다.

5월 13일에 2호계사(2,000수)에서도 사료섭취량과 산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폐사율이 증가하여 P사료로 바꾸어 급이하고 사료섭취량은 정상 급이하지만 산란율이 계속 감소하는 3호계사(1,900수)는 5월 14일에 P사료로 급이하기 시작했다.

농장측은 해표사료에서 P사료로 급이한 후 산란율이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었고 사료섭취량과 폐사율이 정상이 되었다며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고려산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해표사료 회사측은 만약 사료에 문제가 있다면 같은 사료를 공급받고 있는 인근 지역의 4개 농장에도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상례인데 5월 8일 사건발생 전후 1개월 사이에 다른 농장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정풍농장의 사양관리가 소홀했거나 수질에 이상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농장측은 '96년 4월 1일자로 경남 가축위생 시험소 동부지소에서 ND(뉴캐슬병), EDS-76(산란저하증), IB(전염성기관지염), IBD(감보르병)에 대한 면역항체 형성이 좋다

고 통보받았으므로 사양관리에 별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수의과학연구소의 가검물 검사 결과 폐사된 닭이 마이코톡신 중독증으로 판명되었다.

마이코톡신 중독증은 사료중에 곰팡이가 증식함으로써 생긴 곰팡이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 중독증을 말하므로 오염된 사료에 의해 산란율과 사료섭취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질오염에 의한 질병 발생은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표사료측은 사료가 곰팡이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깔짚이 곰팡이에 오염된 계사에서 닭을 사육할 경우 마이코톡신 중독증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풍농장은 만약 깔짚이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다면 닭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해야 하는데 5월27일 B제약회사 임상병리실의 혈청검사 결과를 보면 IB(전염성기관지염)에 면역항체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표사료측의 주장은 근거없는 논리라고 반박하고 나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급여했던 사료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샘플도 없는 상태로 심증은 있으나 물증, 즉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검물 검사 결과 마이코톡신 중독증이라고 국가공인기관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사료회사측이 시인을 하지 않고 있어 농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부산 해표사료는 피해 보상 문제 때문에 사전 협상 보다는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기 위해 극한 대립의 길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위의 양계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俊)